

전남 직업계고, 조선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앞장 선다

전남교육청, 현대삼호중공업 등 7개 기관 업무 협약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역 특화산업인 조선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전라남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현대삼호중공업(주), 대한조선(주) 등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산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의 조선업 인성 개선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참여 기관들과 함께 조선업체 구인난과 청년취업난 해

소를 위해 협력하여 산·학·관 거버넌스를 구축키로 했다.

또 지역 산단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서 특성화고 학과개편, 전남혁신형 기업맞춤교육(JOBs) 운영, 등 통해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업계와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송용석 교육국장은 "전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남에 있는 조선업체에 취업해 전남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현대삼호중공업(주)과 대한조선(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생들의 조선분야 취업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에 영광대마산단 이모빌리티 인력양성을 위해 영광공고 이모빌리티

티과 학과개편을 추진하였고, 영광군과 이모빌리티연구소, 이모빌리티기업협의회

와 함께 이모빌리티 우수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교육청, 한전KDN과 '직업계고 학생 인턴십 업무협약'

학생 10명 한전KDN 인턴십 추후 협력업체 채용전형 기회

광주시교육청이 전남 나주 혁신도시 내 한전KDN 본사 회의실에서 한전KDN과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계고 학생 한전KDN 인턴십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한전KDN 백성필 인사노무처장·배익수 일자리창출팀장 및 광주시교육청 이승우 교육국장·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 조동근 장학사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 제공 등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 열 명이 한전KDN 인턴십에 참여하게 된다. 추후 한전KDN 협력업체는 인턴십 수료자 열 명에게 본사 및 협력업체 채용전형 기회를 제



공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이승우 교육국장은 "직업교육 이후 취업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은 다양한 현장 실습과 취업 기회를 갖게 됐다"며 "시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추진해 광주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기능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조선대, 2020년 신입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조선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신입교원 12명을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14주간 운영한 '2020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입교원 교수법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교수법 및 교육혁신문화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 간 커뮤니티와 정보 공유의 장 형성을 지원하게 위

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신입교원이 알아야 할 교무행정과 교수법 워크숍 등으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형 교육을 도입했다.

세부 주제는 ▲학생참여를 높이는 온라인 수업 전략 ▲내 수업에 맞는 학생평가 설계하기 ▲온라인상의 저작권 쟁점과 이슈 ▲온라인시대의 감성교수법 ▲온라인

수업 학생평가 노하우 및 사례공유 등이다.

2020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료식은 6월 19일 오전 11시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조선대 김민성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교수 자신의 전문성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습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교육트렌드, 교육이슈 등에 관한 정보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진행 소감을 밝혔다.

순천대 전남농촌융복합지원센터 '시작하는 농업인 스타트업 스쿨'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전라남도과 손잡고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농업업 귀농·귀촌 희망자, 청년농업인,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농업인'을 위한 단기교육과정인 스타트업 스쿨(Start up School)'을 운영한다.

스타트업 스쿨은 1일 6시간씩 4일간 운영되며 강사진은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창업전문가, 제품개발 및 가공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과정은 1일 차(농촌융복합산업의 이해와 정책·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전략 △농촌 창업과 사업 계획 방법 및 우수사례 소개, 2일 차(제품 개발과 가공에 대한 이론 강의 △1차×2차산

업 선진경영체(네시피에프앤비) 방문, 3일 차(△1차×2차×3차산업 선진경영체(담주브로이, 모후실에서 만나차) 견학), 4일 차(△유튜브를 통한 농업 마케팅 전략 △유통 및 수출 채널 확보방안 △농촌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설명)로 일차별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교육 수료자는 농업교육 24시간(농업인력포털)이 인정되며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천대학교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오는 1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접수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센터홈페이지(www.jnab6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주시교육청, '119안전센터 의료용 방호복 전달식'

의료용 방호복 300세트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소방안전본부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119안전센터 의료용 방호복 전달식'을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 지난 19일 개최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들의 선별진료소 이송으로 고생하고 있는 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을 격려했고 구급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5개구 소방서 안전센터에 보호복·덧신·고글·장

갑·KF94마스크 등 총 5종으로 구성된 의료용 방호복 300세트를 지원했다.

119안전센터는 첫 등교수업이 시작된 5월20일부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교 학생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시켰고, 5월20일부터 6월17일까지 21일(토·일요일 제외) 동안 총 454명, 하루 평균 22명의 학생들을 이송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소방안전본부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앞으로도 학생 이송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